

옥수역 (공공미술 시민아이디어 구현 ‘시민스토리 공모’ 당선작)

임철균

옥수역,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

지금으로부터 삼십년이 조금 더 된 시절의 이야기다. 깊은 밤 옥수동 끝자락에 올라가 둘러보면 더 높은 것이라고 오직 어두운 밤하늘뿐이었다. 내려다보면 강변로를 따라 두 줄로 나란히 선 가로등 불빛 사이로 한강이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 건너편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도시 강남의 불빛이 밤마다 서늘하게 번쩍었다. 그때 우리는 한강 건너편 압구정동을 바라보며 옥수동을 뒷구정동이라 쓸쓸하게 부르기도 했다. 하지만 매봉산과 한강의 사이에 배산임수를 제대로 갖춘 천혜의 명당이어서였을까? 당시 옥수동은 그곳에 따리 튼 이들에게 서울이라는 도시 생활에 마지막 피난처이자 삶에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보금자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이제 갓 피어나는 시퍼런 청춘들이 밤마다 옥수동 가파른 길을 헉헉대며 올랐다. 그렇게 하여 불나비처럼 밤마다 우리가 모여든 곳은 옥수동 비탈길 끝자락에 있는 ‘야학’ 이었다. 학교를 다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심지어 중학생인데도 읽기 쓰기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어려운 살림의 동네였고 부모님들이 신경을 써 주지 못하다 보니 그런 학생들이 꽤 있었다. 그리고 좀 더 배우고자 고입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대학생이었던 우리들은 밤마다 기꺼이 그 가파른 옥수동 산 비탈길을 올라갔다. 가끔 한남동 친구 집에서 머물다 옥수동으로 갈 때가 있었는데 그 때는 정말이지 서울 한 가운데서 뜬금없이 산행 하는 기분이었다. 퇴계와 율곡은 물론 조광조, 정철, 유성룡, 이항복 등 기라성 같은 이들이 학문을 닦고 자연을 벗 삼던 독서당이 있었다 해서 ‘독서당길’ 이라 부르는 매봉산 고갯길을 넘어야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미로 같은 구불구불한 골목길들을 내려가 옥수동 야학에 도착하면 한겨울에도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1985년 가을이 깊어갈 무렵 옥수역과 동호대교가 마침내 개통되었다. 그동안 맨 날 푹푹푹 거리고 있던 역에 전철이 정말 거짓말처럼 들어왔다. 옥수역을 우리는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 이라 불렀다. 80년대 중반 서울에 대표적 달동네인, 하늘에서 제일 가까운 옥수동에 생긴 역이기

때문이었다. 어쨌든 옥수역 개통을 축하하며 우리들 모두 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파티를 했다. 따끈한 어묵국물에 소주 한 잔 마시고 노가리를 씹다가 막걸리 한 잔 마시고 또 누군가 오늘 내가 쏘겠다며 호기를 부려 맥주도 마시며 옥수역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옥수동에서 밤늦게 야학을 마치고 나와 각자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야하는데 배차 시간도 들쭉날쭉하고 서울 시내로 나가 다시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3호선 전철은 말 그대로 급행열차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개통된 옥수역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의 장소가 되었다.

문인화가이자 시인인 친구가 인사동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하여 주말에 들렀다. 원래는 친구와 점심 겸 술 한 잔을 하기로 했는데 의외로 방문객들이 많았다. 이리저리 눈치를 보아하니 손님 접대하느라 함께 점심 먹기는 틀린 것 같아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외동딸이 따르릉 따르릉 나를 부르고 있었다. 어인 일로 공주님께서 전화를 주셨느냐 여쭙어보니 자기 지금 강남에 있다고 한다. 논문 자료 때문에 친구를 만나고 있다 한다. 아바마마 오늘 인사동 가셨다는데 괜히 낯술 드시지 말고 자기랑 만나자 한다. 얼마 전 과외 아르바이트하고 받은 돈 넉넉히 있으니 맛있는 것 사준다고 한다. 황송한 마음에 그럼 어디서 볼까 했더니 옥수역으로 오시라 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옥수역에 섰다. 종로에서 옥수역이 그리 멀지 않은 거리이라 약속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했다. 이러 저리 둘러보니 감회도 새롭고 역사 안 풍경이 많이 바뀌어 한편 조금 낯설었다. 예전에 내가 옥수동을 떠날 때만 해도 옥수역 풍경이 조금 거칠었는데 이제는 매우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있었다. 역사 안 여기저기를 기웃기웃하며 구경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외동딸 녀석이 미안 미안을 연발하며 자료가 더 필요하여 친구랑 누구를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신에 저녁에 맛있는 것 사 가지고 가겠다며 알라뷰 파파를 연발했다. 허탈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 다시 종로로 나가 집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예전의 야학하던 곳이 보고 싶어 발길을 역사 밖으로 옮겼다.

세상에, 역사 밖에 나가서 본 옥수동 풍경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곳이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둘러봐도 내가 예전에 알던 옥수동은 아예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내가 옥수동을 떠나던 해 <옥수극동 아파트>가 들

어졌고 그 아파트를 필두로 옥수동 곳곳이 중장비들에 의해 거침없이 파헤쳐지고 있기는 했다. 이후 옥수동이 전면적으로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숲으로 변했다는 것은 대충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주말드라마 ‘서울에 달’의 배경으로 옥수동이 나오면서 나는 가끔 낮익은 풍경을 보기도 했다. 그런데 2018년 내 눈앞에 펼쳐진 옥수동의 변화한 풍경은 나의 상상이상이었다. 매봉산 자락의 그 가파른 경사가 조금 완만해 졌고 저 멀리 꼭대기까지 온통 빌라들에 아파트 단지였다. 대충 눈짐작으로 예전에 야학이 있던 곳을 더듬어보았지만 도저히 그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음 주까지 마쳐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다. 이런 저런 작업을 하다 문득 예전의 옥수동 모습이 보고 싶어 검색을 해 보았다. 낮익은 풍경들이 아직은 사진으로 인터넷에 남아있었다. 다시 현재의 옥수동 모습을 검색해보았다. 어느 블로그에 항공사진으로 비교해 놓은 과거의 옥수동과 현재의 옥수동이 있었는데, 상전벽해였다. 내 기억 속 과거의 옥수동은 을씨년스러운 잿빛이었는데 현재의 옥수동은 당시 우리가 한강 너머로 멀리 아스라이 바라보았던 강남의 모습이였다.

옥수동을 검색하는 과정에 옥수역과 관련된 서울시 공고문이 보였다. 클릭해보니 <공공미술 ‘시민 아이디어 구현’ 프로젝트> 시민스토리 공모였다. 무얼까? 내용을 보니 도시재생과 관련한 마을공동체 살리기에 관한 시민 대상의 공모전이었다. 공고문을 다운 받아 들여다보니 성동구의 세 장소 중 낮익은 곳이 눈에 띄었다. 옥수역 고가 아래 유희공간의 활용에 관한 시민스토리 공모였다. 이 곳이라면 나도 알고 있는 곳이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예전에 그곳은 할아버지들이 한여름에 장기나 두며 더위를 피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깔끔한 외형에 ‘다락옥수’라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서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유희공간이 있어 그곳을 새로운 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시민 아이디어 공모였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옥수역과 옥수동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서울시의 시민스토리 공모전을 보면서 새삼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외동딸에게 아빠의 제 또래시절, 옥수동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준 적이 없었다. 언제 시간을 내어 외동딸과 함께 옥수역에서 내려 고가 아래 ‘다락옥수’에 들러 차도 한 잔 마시고 쉬엄쉬엄 옥수동을 거닐어보아야겠다. 외동딸이야 지금의 풍경이 당연하게 보이겠지만, 천천히 함께 걸으며 현재의 모습과 참 많이 달랐던 과거의 옥수동 그리고 그곳에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 주어야겠다. <끝>